

연중 제 24주일

제 1독서 : 집회 27, 33-28, 9

제 2독서 : 로마 14, 7-9

특 음 : 마태 18, 21-35

숲 정 이

“일곱 번은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야라”

(마태 18, 22).

강론

“용서하자”

서용복 신부 / 영등동 천주교회

성경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중은 우리 신앙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를 통하여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빛을 탕감해주었던 중을 다시 불러다가 그 빛을 다 갚기까지 형리에게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같이 하시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되 속히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용서를 해야지 하면서도 오래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게 되면 그만큼 내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무엇을 먹기만 하면 토하고 도로 토하고 맙니다. 의사가 아무리 위를 검사해보아야 아무 병도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니 그 마음속에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미운 마음이 가득해서 결국은 육체적으로 그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인격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잠깐 머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속박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어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사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두 사도와 같은 생각이 빨리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으며 또한 그들을 용서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용서의 표본 인물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의 죄를 용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리

“이웃을 편안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인사건은 한 사람만 죽여도 신문 사회면 첫머리를 장식할 만큼 큰사건으로 취급됐다. 그런데 요즘 들어선 한두 사람 정도로는 사건으로 취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만큼 사건이 많이 늘었고 지능적이며 잔인해진 때문이다. 살인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너무 쉽게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원인이라 하겠다.

얼마 전 전주 송천동에서 발생한 새벽 출근길 광란의 칼부림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세상이 싫다.” “죽고 싶다.”며 세상을 비판하던 20대 젊은이가 등교하던 학생과 출근하던 공무원을 칼로 찔러 아까운 목숨을 끊은 것은 광란이라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 참극이었다. 아무런 원한이나 동기없이 무작정 칼을 휘둘렀으니 말이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걱정이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자녀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좋은 점수만을 요구하는 부모들.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어린이들. 그렇게 자란 어린이들의 인성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술, 담배를 아무도 모르게 피우고 마신다. 끝내는 마약까지 손을 대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자란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원가 불만을 터뜨리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사회를 깜짝 놀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한다. 항상 억울해 하며 그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일이 남을 돕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산다면 이 사회가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

숲정이 산책



존경받을 신부님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②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씨앗”

■ 기해박해(1839년)

• 배경 및 원인

표면적인 이유는 사학인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근본 원인은 역시 정치가들의 세력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양대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중 안동 김씨는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이에 풍양 조씨 일문은 안동 김씨를 몰아내고자 천주교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이라 비방했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대왕대비 김씨는 또다시 천주교 박해령을 내렸다.

• 대표적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부친 김제준(이나시오), 정하상(바오로), 13세 소년 유대철(베드로), 최경환(프란치스코) 등의 평신도와 앵베르 <范> 주교, 사스망 <鄭> 신부, 모방 <羅> 신부 등의 성직자가 순교하였다.

• 특기할 만한 사건

정약종의 둘째 아들로써 당시 조선 천주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활동하던 정하상은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호교론서인「상재상서(上宰相書)」를 저술해두었다. 체포 직후 그는 이 글을 종사관에게 주어 재상인 이지연에게 전달했다.

이 글은 3천4백여자의 짙막한 것으로서 천주교 기본 교리의 설명, 호교론, 신앙의 자유를 호소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상재상서」는 「황사영 백서」와 함께 한국교회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지니고 있던 종교적인 열정과 교리에 대한 이해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과

전교회장을 맡고 있던 현석문(가롤로)은 앵베르 <范> 주교의 요청에 따라 거지 행세를 하며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기해일기」라 불리는 이 기록에 따르면 참수된 순교자가 54명, 옥사 또는 병사한 순교자가 60여명 등 모두 1백10여명이 기해박해 동안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25년 복자품에 오른 79위 복자 대부분은 기해박해의 순교자들이다.

이 박해로 인해 대부분의 교우촌이 몰락했으나 박해가 극심하고 규모도 전국적이었던 만큼 오히려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교회는 식자층(識者層) 지도자를 잃은 반면 그 세력이 무식하고 가난한 서민층으로 확대되었다.

■ 병오박해(1846년)

• 배경 및 원인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상해 부근 김가항(金家巷) 성당에서 서품된 직후 페레올 <高> 주교(제3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安> 신부와 함께 조선 땅으로 들어왔다. 전교활동을 하던 김 신부는 중국으로부터 성직자를 영입할 길을 찾아보라는 페레올 주교의 명을 받고 비교적 안전한 해로(海路)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황해도 부근 순위도(巡威島)에서 관헌들에게 체포되었다(1846년 5월). 서울로 압송된 김 신부는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탄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프랑스 군함 세 척이 충청도 부근에 닿을 내리고 기해박해 때 세 명의 프랑스인 사제를 살해한 책임을 물어왔다. 이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부는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교인들의 처형을 서두르게 된다.

• 대표적 순교자

끝내 배교(背敎)를 거부한 김대건 신부는 ‘사학(邪學)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참수된다. 이어 9월 20일에는 김 신부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킨 기해일기의 저자 현석문(가롤로)을 비롯 남경문(베드로), 우술림(수산나) 등이 순교하였다. 병오박해의 순교자는 김대건 신부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 특기할 만한 사건

페레올 주교는 이들 9명의 순교 사실을 「기해일기」에 첨가한 「기해·병오 순교자전」을 프랑스어로 편집했다. 그리고 이것을 최양업 신부가 라틴어로 옮겨 로마에 보냈다.

• 결과

로마에서는 최양업 신부가 보낸 문헌을 토대로 1857년 기해 및 병오박해의 순교자 가운데 82명을 가경자(可敬者)로 선포했다. 이들 중 79명이 1925년 복자위에 올랐다가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구(九) 죽염

- 판매처 모집
- 구입하실 분 연락주시시오.
- 신경성 위장병, 당뇨, 무좀(습진) 만성 피로 등.
- ☎ (0658) 547-9970
- 44-4760
- 호출기 012-688-0993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 학생 수시 모집
- 숙성 발모·피부미용과
- 이리시 중앙동3가 7-1
- ☎ 841-2496, 855-8653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효자 소파 공장

고급 음접세트(업소용)
제작 및 천갈이 전문
조종복(비오)
효자테니스장 정문 앞
☎ (0652) 223-4346

잡간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6. “진보와 환경”

과학 기술이 날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 일상에 파고든 과학 기술은 과거와는 다른 문화 형태와 사고방식을 낳았다. 기술의 발전은 이미 지구의 면모를 바꾸어 놓았고, 여러 학문의 진보는 인간이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도와준다. 인간의 진보를 위한다는 과학과 기계 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고, 급속도로 파괴되는 환경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교회는 물질문명에서 비롯된 생태계 위기와 환경 파괴에 대해 방관할 수가 없다. “땅을 정복하고 짐승을 부려라”(창세 1.28).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된 모든 것을 맡기셨다. 정복은 파괴가 아니고, 부리는 것은 혹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부가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진보를 위해 인류와 환경과의 관계 개선을 당부하고 있다.

인류는 진보해야 하고 신앙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도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는 인류의 진보는 무의미하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교구 소식

- ※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북협의회 창립대회 및 잔치미당 : 9월12일(일) 오후2시 윤희관.
- 1. 사제 인사 발령 : 서석구 신부(화산동 주임→안식년), 나춘성 신부(유학 대기→스위스 교포사목), 이성우 신부(유학→화산동 주임), 윤양호 신부(육군 전역→유학), 최상범 신부(육군 전역→유학).
- 2. 천호 십자가의 길 축복식 : 9월15일(수) 오후3시 천호 성지.
- 3.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 9월13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 4. 수녀연합회 월례회 : 9월14일(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9월19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 6. 로사리오회 임원회의 : 9월18일(토) 오후2시 가톨릭센터.
- 7. 농촌 노인들을 위한 털조끼 뜨기 자원봉사자 모집 : 11월15일까지, 문의 84-5290.
- 8. 103위 성인 대축일 기념음악회(송천 성당 대건성가대) : 9월18일(토) 오후8시 예술회관, 입장-오후7시30분까지.
- 9.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9월20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성 김대건 신부.

- ※ 축! 명명 : 13일(성요한 크리스소스토모) 오성기 신부님.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9월19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 (0652)222-5269.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우유곽 재생

매일 우유곽을 만들기 위해 20-30년생 된 나무 8천 그루가 베어집니다. 따라서 우유곽을 사용한 후 씻어서 펴 말린 다음 조금씩 묶어 재생 종이공장에 보냅니다.

동성 연약(전북 총대리점)
 삼진요업·한국 적연와 테라코타·성광 요업 각종 적벽돌 KS 제품만 취급
 권명자(데레사) 시청 뒤 우진빌딩 옆
 ☎ 84-9005

축! 이진 김석주 내과 의원
 김석주(토마스) 서정애(에메렌시아) 육지구 축협도지회 맞은편
 ☎ 251-2686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남문 노트사**
 원수관(야고보) 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산농서실
 고영선(마태오) 송춘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요심이 (1046) 김병오

십자가의 길 축복식에 **초대합니다**

- 때 : 9월15일(수) 오후 3시
- 곳 : 천호 성지
- 주례 : 이병호 주교
- 연락처 : 천호 피정의 집 73-6600 호남교회사원구소 73-6126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1. 판매기간 : 8.21(토) - 10.10(일)
2. 가격 : (8Kg 1상자당)
 - 특 : 20,000원 대 : 17,000원
 - 중 : 14,000원 소 : 8,000원
3. 구입 문의 : (0658)43-0881, 0880 43-4236

(有) 경일건설
 조립식 건축, 사무실 칸막이, 건축, 토목, 샌드위치판넬, 철구조물 공사
 김해선(레미지오)
 구 소방서 ←→ 홍국생명 중간
 ☎ (0652)75-0161 · FAX 71-6302
 호출기 012-681-005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반회장 임명: 이후3반 손정순(안나)→원옥순(셀뚜르다) 기린봉 아파트 2반-박길순(비아) 수고하시겠습니다.
2. 반회장 성지순례: 15일 베른 성지 새벽미사.
3. 민수녀님 휴가: 13일~18일
4. 7월 영세자 첫교배: 19일 후 3시.
5. 모임: ①부녀회(14일 어머니미사 후) ②형제회(18일 후 2시) ③대건회(19일 장엄미사 후)
6. 알림: 가을철 가정방문은 없습니다. 반미사를 원하시는 반은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7. 금주 청소: 중노25, 26반
차주 청소: 중노27, 이후1반

☐ 지난주 봉헌금: 1,002,980원 ☐ 교무금: 821,5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한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레지오단원 교육: 일시-21일(화요일)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
2. 회합: 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③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④부녀회-16일 오전 10시 ⑤성우회-19일 공식미사 후.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씨, 독서-임병련 씨 부부
봉헌-채용석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씨, 독서-안철만 씨 부부
봉헌-장홍덕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743,220원 ☐ 교무금: 859,2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자모회-다음주일
 2. 남전주 어린이 체육대회: 19일(일) 성심여교 어린이 도시락 지참, 오전 8시 성당에 도착
 3. 성지순례: 20일(월) 연풍성지(수안보 온천) 오전 7시30분 출발, 회비-1만원, 오늘까지 접수 마감.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를 접수: 사무실
 5.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양주태 ②주영래
봉헌-이준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1,700원 ☐ 교무금: 16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민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연중 제24주일!(주일금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1. 프란치스코3회: 9월12일(오늘) 오후 2시
 2. 성심회: 9월14일(화) 오전 10시30분(전원 참석바람)
 3. 전례부 모임: 9월16일(목) 오후 8시(전원 참석바람)
 4. 성모회: 9월19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본당 임시 사목총회: 9월26일(일) 공식미사 후(전원 참석바람)
 6. 영세자 집중교리: 9월14일(화)~9월17일(금) 매일 저녁미사 후(통신교리 이수자도 집중교리를 필히 받아야 영세할 수 있음)
 7. 영세식: 9월18일(토) 저녁미사(영세자와 대부분은 1시간 전에 집결바람)
 8. 추석 위령 합동미사 예를: 9월14일(화) 부터 사무실에 접수바람.
 9. 추석 대축일 미사 시간 안내: 9월30일(추석날) 새벽 6시, 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965,35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한

- ◎ 연중 제24주일
1. 다음주: 본당의 날 행사(전신자 참여) 미사-새벽미사, 공식미사 10시, 영세식: 오전 9시, 체육대회: 점심식사 후(구역별 음식 판매)
 2. 오늘 공식미사 후: 전신자 대청소: 빠짐없이 참여바람.
 3. 구역, 반미사: 9월15일(수) 1-5반.
 4. 오늘 사목회, 학생교리반 시작: (일) 오전 9시.
 5. 젊은이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교리실, 교재: 신약성서, 20세 이상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6. 영세 대상자 집중교리: 9월14일(화)~17일(금) 오후 8시.
 7. 청소 봉사: 4구역1반~3반. ※ 교리반 모집중: 신부님반

☐ 지난주 봉헌금: 817,200원 ☐ 교무금: 81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울드레아(공식미사 후) ③제속금과 라형제회(후 1시30분) ④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⑤사목회(후 8시)
 2. 사목회: 14일(화) 오전 11시.
 3. 9월 영세자 집중교리: 14일~17일 저녁 8시.
 4. 명화 상영: 15일(수) 저녁미사 후 "하늘에 꽃 피우리(이무갈다 생애)
 5. 구역반장 회의: 16일(목) 오전 11시.
 6. 차주: ①영세식(공식미사중) ②바녀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③청년연합회 월례회(저녁미사 후)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 ◎ 특별강론(다음주일) "순교자의 신심" 김진소 신부
1. "복당은 우리" 19일 전 9시~후 4시, 회비 3,000원, 교리실.
 2. 견진교리: 성인 20일~24일 매일 저녁 8시, 중·고생 토요일 후 5시, 주일 9시미사 후, 견진 시험문제 답안 19일 제출.
 3. 견진자 신청: 서류와 회비 5,000원. 19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4.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13일 전 10시30분 센터 3층.
 5. 초등부 교사 2차 교재 연수: 18일 후 1시30분~6시 센터
 6. 가정방문 일정: 14일 16-2반(우성) 전 9시, 16-3반 후 2시30분, 16일 16-5반 전 9시, 16-6반 후 2시30분, 17일 16-7반 전 9시, 17-1반(신일) 후 2시30분.
 7. 회의: 성모회-15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 지난주 봉헌금: 1,485,890원 ☐ 교무금: 1,203,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이 성 우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사목회: 오늘 오후 8시.
3. 반모임: 14일(화)오전-화산2(B)동신, 오후-평화, 너-삼정2, 15일(수)오전-우성, 오후-화산2(A)비사빌, 16일(목)오전-오성온하1, 오후-오성온하2
4. 울드레아: 다음주일 미사 후
금주 전례: 최정순, 정순성, 독서·봉헌-이길화, 박재영
차주 전례: 박순옥, 강희연, 독서·봉헌-김춘미, 최호열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실

- ◎ 오늘은 연중 제 24주일입니다.
1.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교육관)
 2. 성모회: 9월15일 오전 11시.
 3. 구역성서반 모임(보좌신부님): 매주 수(목)요일, 오후 8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청년 성가대 및 어머니 성가대 단원을 연중 모집합니다.
미사 안내: 금주-매피의 모후, 즐거움
차주-장조주, 신자들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512,960원 ☐ 교무금: 1,900,5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①성지순례-오늘 오전 7시 출발 ②제대회-17일(금) 10시 미사 후.
2. 예비자 1인씩 인도합니다.
차주 모임: 성전건축위원회, 반회장 준비모임
금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조세영 ②이정금
차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김준권 ②김성보
봉헌 안내: 최규화 부부, 김상권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422,520원 ☐ 교무금: 1,699,000원